

영아기 첫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of Mothers
with Infants

조복희(Cho, Bok Hee)*, 정민자(Jung, Min Ja)**, 김양은(Kim, Yang Eun)***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초기 영아모의 아동발달지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식 수준과 특성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2세 미만의 첫 자녀를 둔 어머니 156명을 대상으로 양육관련 설문지와 KCDI(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Larsen, & Juhasz, 1986)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처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아모의 아동발달지식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70.0%로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신체발달 순으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 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일수록 유아의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월수입 정도가 많을수록 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시 체중이 많았던 자녀를 둔 어머니일수록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수유방법에 따른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혼합수유를 하는 어머니가 모유수유, 인공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인지발달, 사회성발달에 관한 지식이 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 시부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성의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일수록 아동발달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영아모 대상의 부모교육, 임신부 교실, 특수아동 자녀를 둔 부모대상 교육 프로그램, 입양센터, 미혼모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아동발달지식, 영아기, 인지발달, 정서발달

* 제1저자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 전공 교수

** 공동저자(교신저자) : 경희대학교 강사, eqjnj@hanmail.net

*** 공동저자 :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 박사과정

I. 서 론

저출산, 핵가족화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의 어머니들은 많은 수의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델과 부모, 형제 등의 지지가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가정 내의 양육문제를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워졌고, 이 어려움을 가족 외의 다른 사람이나 정보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특히 기혼 취업여성인 경우에는 양육시간, 양육경험, 아동발달지식 등의 부족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머니가 알고 있는 자녀양육에 관련한 아동발달지식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고 적절한 발달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자녀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은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기술을 사용하도록 도와주고, 유아발달에 적절한 환경자극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Stevens, 1984a).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이 어린 영아기부터 강조되는 사회에서 영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성만큼 어머니들이 일찍부터 정확한 아동발달지식을 갖는 것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더구나 최근에 영유아연구에 대한 진전으로 영유아 발달에 대한 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생겨났으므로, 이러한 영유아 발달지식을 부모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도가 필요하다(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 장유경, 2002).

Goodnow(1988)에 의하면 아동발달지식이란 어머니가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영역의 유아발달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로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 갖는 지식과 정보라고 정의된다. Macphee(1984)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발달지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연령에 따라 이상적인 유아의 발달상태를 말해주는 행동발달단계에 관한 지식, 둘째 이상적인 유아의 행동발달 상태를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녀양육방법 및 지식, 셋째 유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의 원리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발달지식에는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발달지표에 대한 기대, 아동의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 포함된다. 또한 아동발달에 따른 신체적, 생물학적, 사회

정서적, 인지적 요구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에 대한 이해, 아동의 초기경험과 환경과의 양방향적 영향과 발달의 원리, 아동의 일반적 능력에 대한 설명 등도 아동발달 지식의 하위요인으로 포함된다.

유아의 행동발달에 관한 지식은 부모의 기대를 형성시키고, 이러한 기대는 자녀 양육에 있어 내적인 기준으로 하나의 발달시간표(development timetable)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자녀에게 가능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내는 개인적인 표준행동목록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 연구결과 영아의 발달능력에 관한 평가결과로 측정된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과 어머니의 물리적, 언어적 환경제공 간에 관련이 있음이 규명된 바 있다(Stevens, 1984a, 1984b). Stevens(1984b)는 243명의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인 영아(저체중아, 조산아)들을 대상으로 소득변인과 교육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발달지식 점수가 높은 집단의 어머니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양육기술을 보여주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조산을 한 어머니, 특히 조산을 한 십대 어머니들이 양육태도와 아동발달지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산을 한 십대 어머니가 작성한 발달이정표 평가결과는 정상분만을 한 십대 어머니들보다 낮은 평가결과를 보여주었고(deLissov, 1973; Field, 1980), 극도로 저체중아인 조산아 40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연구에서는 출생시에 측정된 영아의 발달에 관한 어머니의 지식(KIDI;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점수와 영아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측정된 영아의 BSID(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점수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Dichtelmiller et al., 1992). Miller(1988)는 대규모의 이질적인 어머니 집단과 출산시 다양한 체중을 지닌 집단을 포함하여 저체중 조산아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란 주제로 코호트(Cohort)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첫2년 동안의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과 개념이 3세 때의 아동의 인지발달,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낸 바 있다.

많은 연구에서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이 훈육책략, 사회적 상호작용, 적합한 가정환경의 제공에 의하여 적절한 양육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Kinard, & Klerman, 1980; Miller, 1988), 예컨대 Miller(1988)는 '적절한 양육행동은 매우 복잡한 발달에 대한 신념체계 또는 아동의 능력에 대한 적절한 개념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Schaefer(1991)는 영아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발달규준에 대한 부모의 지식과 부모의 신념이 부모, 아동의 능력 양쪽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있음을 보고하였다. 부모의 지식과 신념은 양육행동과 관련되고, 그에 따른 양육행동은 아동발달과 상관이 있다(McGillicuddy-Delisi, 1982, 1985; Sigel, 1982).

부모의 발달에 대한 개념이 유아의 인지적 능력과 관계된다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5,6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의 읽기, 수학능력 검사결과와 부모

의 인지발달론적 견해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son & Martin, 1983). Sameroff, Seifer, Barocas, Zax 그리고 Greenspan(1987)은 사회경제적 지위(SES; Socio-Economic Status) 변인과 어머니의 정신건강 변인을 포함하여 기타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어머니의 아동발달에 대한 개념, 예컨대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발달과정상의 행동을 설명하는 난이도 수준이 4세 아동의 지능검사(WPPSI; the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Larsen과 Juhasz(1986)는 사회적, 정서적 성숙과 어머니의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높은 수준의 아동발달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스트레스가 적고, 높은 성숙수준과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이 많은 십대 어머니들은 양육태도에서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발달에 관해 지식이 풍부한 어머니는 아동들의 사회적, 지적 성취를 지지해 주는, 아동들을 위한 연령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아동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보다 민감하다(Goodnow, 1988). 이처럼 부모의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은 유아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근거로서 작용하게 되고,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과 기대, 더 나아가서 아동발달의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Miller, 1988; Stevens, 1984b).

부모의 아동발달지식이 중요한 만큼 아동발달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도 다양하다. Benasich와 Brooks-Gunn(1996)은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을 가정의 양육환경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자녀의 수,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리고 취업여부와 같은 변인들은 가정내 양육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과도 관련을 가져 이러한 특성이 가정의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아동발달지식이 중재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Goodnow, 1984).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교육평가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세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의 개인차를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자녀수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근영 등(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영아모일수록 자녀 양육지식 하위영역 중 양육 및 훈육영역에 있어서만 점수가 높을 뿐 전체 양육지식 점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김순이(1991)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정화(1989), 윤형주와 조복희(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부모의 아동발달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상

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연령이 적은 유아의 부모보다 지능의 차이를 생득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후기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과는 무관한 것으로(Miller, 1988) 자녀의 연령이 부모의 아동발달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정화(1989)는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유아 발달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대하였으며, 자녀의 발달에 대해 지나치게 빠른 기대를 갖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함으로써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아동발달지식 수준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윤형주와 조복희(2004)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발달 지식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고졸인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김정화(1989), 이근영 등(2004)도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동발달지식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근영 등(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여부에 따라서 아동발달지식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화자, 이승아, 김명희, 김영혜, 박남희(2004)의 연구에서는 영아모의 경우 연령이 많은 경우, 신생아를 돌본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중 돌봄 준비를 한 경우, 임신중 돌봄 교육경험을 받은 경우 아동발달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아의 아버지인 경우에도 영아를 돌본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경험이 없는 아버지보다 아동발달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이희선(1987)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어머니보다 중류 계층의 어머니가 자녀의 의사전달 능력에 더 빠르게 기대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아동발달지식이 사회계층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므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아동발달지식의 내용과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환경을 추론하고 나아가 자녀의 발달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이근영 등, 2004).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어머니들의 자녀 아동발달지식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발달지식을 조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육아정보 수준을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심영숙, 서영미, 권인수, 1998; 유경희,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이 양육기술,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영아기 첫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정서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신체발달에 관한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기

술을 포함한 바람직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2세 미만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수준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만2세 미만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수준은 자녀와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만2세 미만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수준은 출산 및 양육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경상,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로서 조사 당시 생후 24개월 미만(12개월 미만 65명,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91명)의 영아(남아 91명, 여아 65명)를 첫 자녀로 둔 어머니 156명이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연령대는 20대 62명, 30대 이상 94명이었고, 아버지의 연령대는 20대 48명, 30대 이상 108명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 46명, 전문대졸 32명, 대졸 이상 78명의 분포를 보였고, 취업별로는 취업 60명, 비취업 96명으로 조사되었고, 가족 월수입별로는 200만원 미만 16명, 200-300만원 57명, 300만원 이상 83명의 분포를 보였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sen과 Juhasz(1986)의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KCD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KCDI는 어머니들의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에서 만3세까지의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을 정서발달 14문항, 인지발달 14문항, 신체발달 14문항, 사회성 발달 14문항의 4개 영역 총 5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CDI의 문항 제작은 아동발

달 대학교재, 아동발달, 가족관계와 관련한 최근의 권위있는 저널, 일반 대중을 위한 아동양육과 아동발달에 관한 책, 다양한 부모훈련 프로그램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우리나라 상황에는 다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미국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사시간을 묻는 문항' 등을 포함하여 인지발달 1문항, 신체발달 1문항을 제외한 54문항을 사용하였다. 4지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대상자가 각 문항을 읽고 맞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각 문항의 옳은 답은 오직 하나이다. 각 문항에서 옳은 답으로 응답하면 1점을, 옳지 않은 답으로 응답하면 0점을 부과하여 점수화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아동발달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Larsen과 Juhasz(1986)의 원척도에서는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93, 준거타당도 .83으로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인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계수가 .8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4개 영역별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하위영역의 내용

영역	내용	문항수	신뢰도 계수
정서발달	영아의 신뢰감, 친밀감, 독립성, 수치심, 애착 등	14	.77
인지발달	영아의 놀이, 언어, 지각능력 등	13	.75
신체발달	영아의 반사능력, 운동능력, 수면, 영양상태, 건강상태, 배변훈련, 안전 등	13	.79
사회성발달	또래집단과의 관계, 규칙, 평행놀이, 협동, 정서표현, 공격성, 초기 사회경험, 집단에 대한 일치감 등	14	.75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약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학 전공 2인에게 전문가 집단 타당성을 검증받았고, 5명의 아동학 전공 석사과정생이 1인당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약 2주간 실시되었다.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및 가정의 일반적 배경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한 뒤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1.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변인별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체 영역의 아동발달지식은 54점 만점에 평균 37.82점($SD=6.05$)으로 평균 정답률 70.03%를 차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아동발달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서발달에 관한 평균은 10.57점($SD=2.17$)으로 75.5% 수준, 인지발달 평균은 10.68점($SD=1.85$)으로 82.2% 수준, 신체발달 평균은 6.94점($SD=1.66$)으로 53.4% 수준, 사회성발달 평균은 9.63점($SD=2.26$)으로 6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2세 미만의 영아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신체발달 순으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아동발달지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어머니 아동발달지식의 일반적 경향($N = 156$)

	M	SD	RANGE
정서발달	10.57	2.17	3 ~ 14
인지발달	10.68	1.85	3 ~ 13
신체발달	6.94	1.66	1 ~ 11
사회성발달	9.63	2.26	2 ~ 14
전 체	37.82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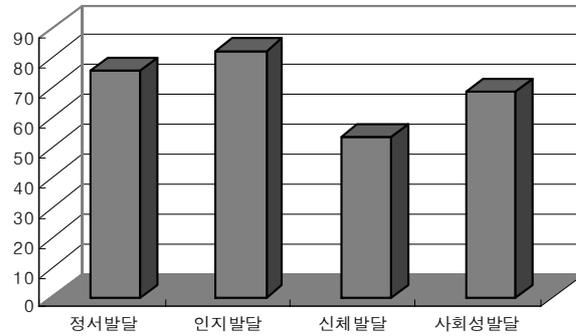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 아동발달지식의 일반적 경향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자녀의 성, 연령,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족 월

수입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M=38.91$)가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M=37.04$)보다 아동발달지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각 하위영역별로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의 경우 정서발달($M=11.05$), 인지발달($M=10.95$), 사회성발달($M=9.89$), 신체발달($M=7.02$) 모두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보다 아동발달지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정서발달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의 경우에만 자녀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2.35, p < .05$). 또한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경우에는 인지발달에 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신체발달 순으로 아동발달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경우에는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신체발달 순으로 아동발달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발달에 관심이 높은 반면에 남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인지발달에 관심을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정서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사회성발달에 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성발달에 관한 지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자녀의 월령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녀의 성·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N = 156$)

변인	<i>n</i>	정서발달 <i>M</i> (<i>SD</i>)	인지발달 <i>M</i> (<i>SD</i>)	신체발달 <i>M</i> (<i>SD</i>)	사회성발달 <i>M</i> (<i>SD</i>)	전체 <i>M</i> (<i>SD</i>)
성						
남아	91	10.23(2.36)	10.48(2.14)	6.88(1.74)	9.45(2.22)	37.04(6.61)
여아	65	11.05(1.78)	10.95(1.32)	7.02(1.55)	9.89(2.32)	38.91(5.02)
<i>t</i>		-2.35*	-1.70	-.51	-1.20	-1.91

(표 계속)

월령							
12개월 미만	65	10.69(2.33)	10.98(2.10)	7.03(1.80)	9.45(2.42)	38.15(7.03)	
24개월 미만	91	10.48(2.06)	10.46(1.63)	6.87(1.55)	9.77(2.15)	37.58(5.27)	
<i>t</i>		.59	1.75	.60	-.88	.58	

* $p < .05$.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30대 이상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M=38.33$)이 20대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M=37.05$)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30대 이상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M=10.95$)이 20대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M=10.13$)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어머니의 연령 ·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N = 156$)

변인	<i>n</i>	정서발달 <i>M(SD)</i>	인지발달 <i>M(SD)</i>	신체발달 <i>M(SD)</i>	사회성발달 <i>M(SD)</i>	전체 <i>M(SD)</i>
모 연령						
20대	62	10.13(2.38)	10.35(2.17)	6.85(1.93)	9.63(2.30)	37.05(7.04)
30대 이상	94	10.95(1.90)	10.89(1.58)	6.97(1.64)	9.64(2.25)	38.33(5.27)
<i>t</i>		-2.38*	-1.69	-.39	-.03	-1.30
모 교육수준						
고졸이하	78	9.92(2.30)	10.13(2.07)	6.73(1.75)	9.51(2.21)	36.29(6.79)
대졸이상	78	11.22(1.84)	11.23(1.41)	7.14(1.54)	9.76(2.32)	39.35(4.78)
<i>t</i>		-3.89***	-3.89***	-1.55	-.67	-3.25***

* $p < .05$. *** $p < .001$.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발달지식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3.25$, $p < .001$). 이를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 발달($t=-3.89$, $p < .001$), 인지발달($t=-3.89$, $p < .001$)에 관한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족 월수입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N = 156)

변 인	n	정서발달 M(SD)	인지발달 M(SD)	신체발달 M(SD)	사회성발달 M(SD)	전 체 M(SD)
취업 여부						
취업	60	10.40(2.36)	10.51(2.02)	6.71(1.72)	9.41(2.46)	37.07(6.52)
비취업	96	10.85(1.81)	10.95(1.52)	7.27(1.77)	10.00(1.87)	39.02(5.03)
t		-1.27	-1.45	-1.97*	-1.60	-1.98*
가족 월수입						
200만원 미만	16	9.75(3.45)	9.50(3.20) _a	6.38(2.00)	8.50(3.12)	34.13(10.47) _a
200-300만원	57	10.67(1.91)	10.40(1.51) _b	7.16(1.29)	9.93(1.53)	38.16(4.53) _b
300만원 이상	83	10.66(2.02)	11.10(1.59) _b	6.89(1.79)	9.65(2.45)	38.30(5.67) _b
F		1.28	6.42**	1.47	2.55	3.44*

주. 평균의 다른 아래첨자는 $p < .05$, $p < .01$ 일 때 의의가 다르다.

* $p < .05$. ** $p < .01$.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보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평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8$, $p < .05$). 이를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특히 신체발달 지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1.97$, $p < .05$), 즉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보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가 자녀의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을 보다 풍부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2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가 200만원 미만의 월수입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보다 아동발달지식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t=3.44$, $p < .05$).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인지발달($t=6.42$, $p < .01$)의 경우에만 가족 월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차이를 보임으로써 가족의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인지발달에 관한 관심도와 아동발달지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 출산 및 양육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출산 및 양육관련 변인, 즉 출생시 자녀의 체중,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출생시 자녀의 체중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N = 156)

변 인	n	정서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	전 체
		M(SD)	M(SD)	M(SD)	M(SD)	M(SD)
출생시 자녀의 체중						
2.5Kg 이하	14	10.71(1.98)	10.79(2.04)	5.00(1.04) _a	10.43(1.56)	37.86(5.13)
2.6-3.4Kg	94	10.79(1.95)	10.72(1.58)	7.06(1.50) _b	9.57(2.29)	38.15(5.36)
3.5Kg 이상	48	10.10(2.58)	10.56(2.28)	7.21(2.05) _b	9.52(2.38)	37.17(7.47)
F		1.62	.14	10.44***	.95	.42

주. 평균의 다른 아래첨자는 $p < .001$ 일 때 의의가 다르다.

*** $p < .001$.

출생시 자녀의 체중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출생시의 체중이 적을수록 정서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에 관한 아동발달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발달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출생시의 체중이 많았던 자녀의 어머니들이 신체발달에 관한 아동발달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특히 신체발달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F=10.44, p < .001$) 출생시의 체중이 2.5kg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2.6kg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N = 156)

변 인	n	정서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	전 체
		M(SD)	M(SD)	M(SD)	M(SD)	M(SD)
수유방법						
모유	63	10.52(2.15)	10.32(2.23) _a	7.02(2.00)	9.44(2.46) _{ab}	37.29(7.17)
인공유	38	10.16(2.33)	10.61(1.41) _{ab}	6.71(1.66)	9.11(2.29) _a	36.55(5.62)
혼합	55	10.91(2.06)	11.15(1.53) _b	6.96(1.53)	10.22(1.90) _b	39.31(4.55)
F		1.38	3.06*	.38	3.18*	2.81

주. 평균의 다른 아래첨자는 $p < .05$ 일 때 의의가 다르다.

* $p < .05$.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수유방법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로는 수유방법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하위영역에 따라서는 일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혼합 수유(모유+인공유), 인공유, 모유 수유 순으로 인지발달에 관한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F=3.06, p < .05$), 혼합수유, 모유 수유, 인공유 순으로 자녀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3.18,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초기에 어머니들이 지니고 있는 자녀의 정서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에 관한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수준을 살펴보고, 자녀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출산 및 양육관련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만2세 미만의 자녀를 첫 자녀로 둔 어머니 156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일반적 경향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아동발달지식은 평균 정답률 70.0%로 평균 이상의 높은 아동발달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개월 영아모를 대상으로 자녀 아동발달지식 수준을 조사한 이근영 등(2004)의 연구에서 아동발달원리에 관한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정답률이 평균 59.5%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아동발달지식수준이 좀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겠다.

이를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신체발달 순으로 자녀의 발달에 대한 아동발달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지발달,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은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에 사회성발달,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은 70% 미만의 정답률을 보임으로써 영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만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을 조사한 결과, 인지발달에 관한 지식보다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윤형주와 조복희(2004)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성발달, 신체발달에 관

한 지식에 있어서는 비슷한 정답률을 보였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자녀의 성, 연령,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 가족 월 수입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여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가 남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보다 아동발달지식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발달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의 경우에만 자녀의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발달에 관심이 높은 반면에 남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인지발달에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월령에 따라서는 자녀의 월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성발달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윤형주와 조복희(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아동발달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30대 이상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이 20대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각 하위영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전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김순이(1991), 윤형주와 조복희(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과 자녀 아동발달지식 점수간의 상관을 살펴본 이근영 등(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 및 훈육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 및 훈육관련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양육 및 훈육과 관련한 경험, 지식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유아 발달에 관한 아동발달지식은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발

달지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어머니와 자녀간의 신뢰감, 친밀감 형성, 자녀의 독립성, 수치심, 애착과 같은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윤형주와 조복희(200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도 정서발달, 인지발달에 있어서 고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아동발달지식을 각각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각각 인지발달, 언어발달에 관한 지식이 차이가 있다고 한 선행연구결과(김순이, 1991; 김정화, 1989)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전체적인 아동발달지식 점수간에 상관이 있음을 밝힌 이근영 등(2004)의 연구에서도 전문대졸보다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일수록 부모자녀 관계영역과 아동발달 원리영역의 자녀아동발달지식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로써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영아들의 초기발달 능력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밝혀지는 1세 미만 영아들의 인지능력에 관한 연구결과들(장유경, 2002)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보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평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보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어머니가 자녀의 신체발달에 관한 지식을 보다 풍부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영 등(2004)의 연구에서는 만4개월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아동발달 지식 수준에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신부와 영아기(0-24개월)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순이, 1991)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언어발달에 관한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 여부가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가족의 월수입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200만원 이상의 월수입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가 200만원 미만의 월수입이 있는 가정의 어머니보다 아동발달지식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특히 가족의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어머니일수록 자녀의 인지발달에 관한 아동발달지식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출산 및 양육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

출생시 자녀의 체중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출생시의 체중이 2.5kg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보다 2.6kg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즉, 출생시 체중이 많았던 유아의 어머니가 자녀의 신체발달에 관한 아동발달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수유방법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유방법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혼합수유를 하는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인지발달에 관한 아동발달지식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합수유,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가 인공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사회성발달에 관한 지식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표집을 임의표집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자녀양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들이 연구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자녀의 특성 및 출산·양육에 관련되는 변인을 고려하여 아동발달지식을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영아 및 유아 발달에 관한 아동발달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임신부 교실, 여성건강센터, 유아나 특수아동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미혼모센터, 입양센터 등의 프로그램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추후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동발달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부모간,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자녀 아동발달지식 수준을 비교해보고, 이를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성격, 결혼만족도 등의 변인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녀의 아동발달지식은 영아기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모의 자녀 아동발달지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종단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미정. (2001).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목표,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응 행동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이. (1991).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위한 준비도에 따른 육아지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정화. (1989). 영아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방경숙. (2000). 영아기 어머니역할 교육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영숙, 서영미, 권인수. (1998). 유아 어머니의 자녀돌보기에 대한 교육연구. **아동간호학회지**, 4(2), 231-244.
- 유경희. (2000). 아동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교육요구도. **대한간호학회지**, 30(4), 905-916.
- 윤형주, 조복희. (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발달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 영아모의 자녀아동발달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9(1), 45-63.
- 이정희. (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안정성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자, 이승아, 김명희, 김영혜, 박남희. (2004). 신생아 부모의 아동발달지식과 양육자신감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0(3), 262-271.
- 장유경. (2002). 발달심리학 연구의 교육적 적용: 영유아 인지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시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2), 55-71.
- 조복희. (2001). **아동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Abidin. (1998). Mother's knowledge about children's play and language development: short-term stability and inter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15-124.
- Benasich, A. A., & Brooks-Gunn, J. (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 Development*, 67(3), 1186-1205.
- deLissovy, V. (1973). Child care by adolescent parents. *Children Today*, 4, 38-43.
- Dichtelmiller, M., Meisels, S. J., Plunkett, J. W., Bozynski, M. E. A., Clafin, C., & Mangelsdorf, S. C. (1992).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knowledge to the development of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3, 210-220.
- Field, T. (1980). Early development of the preterm offspring of teenage mothers. In K. Scott, T. Field, & E. Robertson (Ed.), *Teenage parents and their offspring*. New York: Grune & Stratton.
- Goodnow, J. J. (1984). Parents' ideas about parenting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and recent work. In M. E. Lamb, A. Brown, & B. Rogoff(Ed),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3, 193-242. Hillsdale, N.J.: Erlbaum.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Hee Sun Lee. (1987). A study of maternal developmental expectation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Johnson, J. E., & Martin, C. (1983). *Family environments and kindergarten children's academic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Northeaster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Ellenville, New York.
- Kinard M. E., & Klerman, L. (1980). Teenage parenting and child abuse: Are they relate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0(3), 481.
- Larsen, J. J., & Juhasz, A. J.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81), 39-54.
- Macphee, D. (1984). The Pediatrician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1), 87-100.
- McGillicudy-Delisi, A. V. (1982). Parental beliefs about developmental processes. *Human Development*, 25, 192-200.
- McGillicudy-Delisi, A. 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 7-24). Hillsdale, NJ: Erlbaum.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Sameroff, A. J., Seifer, R., Barocas, R., Zax, M., & Greenspan, S. (1987). IQ scores of 4-year-old children: Social-environmental risk factors. *Pediatrics*, 79, 343-350.
- Schaefer, E. S. (1991). Goals for parent and future parent education: Research on parental beliefs and behavior. *Elementary School Journal*, 91, 239-247.
- Sigel, I. E.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distancing strategies and the child's cognitive behavior. In L. M. Laosa & I. E. Sigel (Ed.), *Families as learn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pp. 47-86). New York: Plenum.
- Stevens, J. H., Jr. (1984a). Black grandmothers' and black adolescent mothers' knowledge about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17-1025.
- Stevens, J. H., Jr. (1984b).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 *Family Relations*, 33, 237-24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knowledge that mothers have on child development. To do so, a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KCDI) developed by Larsen & Juhasz(1986) was carried on to 156 mothers with an infant range from birth to age 24 month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twofold: First, 70% of the questions on average were answered correctly by the participants. In other words, mothers generally demonstrated a high level of knowledge on child development. With regard to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their knowledge on physical development of children was relatively low in comparison with that of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mothers with a girl were more aware of child development especially in relation to child's emotional development. Also, mothers who delivered a heavier baby at birth possessed a higher level of knowledge concerning child's physical development. Second, other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level of family income and mother's educat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affecting the level of knowledge on child development. Unsurprisingly, mothers with a higher income and education level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knowledge on child's cognitive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e study implicates that mothers seldom demonstrate a proper level of knowledge on child development. H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a practical, functional training services and resources for current and future mothers must be ensued.

Key words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fancy, cognitive development, emotional development

2006. 5. 18. 접수 : 2006. 6. 3. 채택